불교중앙박물관 개관 준비 어떻게 되고 있나

국보 · 보물급 성보 회수 '박차'

'무구정광대다라니' 등 1천 94점 협상 중… 유물기증 운동 전개

올 9월 개관 맞춰 '한국불교 1700년 삼보특별전 I - 佛' 준비

오는 9월경 개관 예정인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에 <무구정광대다라니경>, 금동사리외함 등이 포함된 국보 제126호 '불국사삼층석탑내발견유물일괄'이 돌아온다.

이는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위탁 관리돼오던 문화재들에 대한 불교중앙박물관준비팀(이하 준비팀)의 회수 협상의 성과. 그밖에도 보물 9점, 지방문화재 3점 등이 회수 확정돼 불교중앙박물관에서 불교문화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국사 석가탑에서 나온 금동제 사리외함. 지금까지 발견된 신라 사리함 가운데 가장 세련된 작품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왔으나 9월 경이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

준비팀은 지난해 18개 사찰의 위임을 받아 1천94점의 성보문화재를 국립중앙박물관, 경기도박물관, 동국대박물관 등에 회수요청하고, 협상을 진행해왔다. 현재 회수요청 문화재 가운데 소유관계가 분명한 70% 가량이 회수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머지 30% 유물에 대해서는 조계종과 기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 분쟁의 소지도 없지 않다. 회수 유물은 원소유자(사찰)가 원하고 보관 능력도 갖고 있을 경우에 한해 원소유자에게 돌려준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위탁유물 회수 이외에도 준비팀은 유물 기증운동을 전개해 소장품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그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 현재 불교중앙박물관이 관리하고 있는 300여 점의 유물 가운데 외부에서 기증한 유물은 대구 동불암 보명스님의 묘법연화경 16곡병풍, 서울 태양사 진여스님의 관음보살좌상, 불감, 불전, 용왕상, 선재동자상, 백자호, 청양 장곡사 대진스님의 와전 7점 등 31건 37점에 불과한 실정이다.

소장품 확보와 더불어 준비팀이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사업은 개관 특별전이다. 개관에 즈음해서 열릴 '한국불교 1700년 삼보특별전 I - 佛'에는 가치 있는 국내외 성보 200여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불교문화를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조망하는 최초의 전시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개관 특별전을 위해 준비팀은 일본과 북한의 성보를 대여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준비팀 관계자는 "미술품 혹은 문화재로 인식되는 전시가 아닌 전시 자체가 넓은 의미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존 관례적 의미의 전시와는 다른 시각의 차별적 전시를 지향하고 있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가슴속 깊이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전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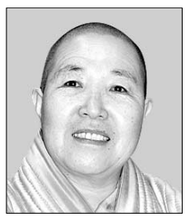
박물관 출범이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관련 종법 개정도 뒤따를 전망이다. 조계종 문화부는 불교중앙박물관 개관을 계기로 교구 본 · 말사의 성보 보존 및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성보박물관 설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문화부 관장업무에 성보박물관 지도감독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종무원의 의무에 성보관리 및 보존 의무 신설 등을 주 내용으로 총무원법 · 성보보존법 · 종무원법 · 지방종정법 등의 개정안이 준비되고 있다. 이르면 오는 3월 종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인터뷰

"성보 관리 역량 한층 강화됩니다"

불교중앙박물관 설립준비위원장 성정 스님



"불교중앙박물관 개관은 성보 관련 행정 · 조사기능에 이어 보존 및 교육기능까지 갖추게 된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종단의 성보관리 역량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지난해 6월 조계종단의 성보문화재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부장으로 부임, 바쁜 새해를 맞고 있는 성정 스님(사진). 스님은 "종단의 박물관인 만큼 성보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고 부처님 가르침을 홍포하는 교육 장소다"며 이 같은 관점에 입각해 성보 전시와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나아가 문화재 보존처리 인력을 충원해서 차차 문화재연구소를 설립할 구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정 스님은 "현재 각 성보박물관이 관계자 개인에 따라 활성화되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하는 불안정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보박물관 관련 종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인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성정 스님은 유물 기증이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아쉬움을 표하며 "불교중앙박물관은 사찰에서 사라져간 문화재들을 한데 모아 우리 불교문화를 널리 알리는 곳이며, 최첨단의 시설을 갖춘 곳인 만큼 믿고 유물을 기증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익순 기자

■ '중국 강남과 한국문화교류' 학회 참가기

고려사 · 천호암과 한국불교관계 조명

변인석 (前 아주대 교수)

지난해 12월 21~23일 중국 절강대학에서는 '중국 강남과 한국문화교류'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열렸다. 고려사(高麗寺) 복원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의 문화교류를 조망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필자가 속한 불교문화분과에 6편의 논문이 발표된 가운데 중국 측 김건인 절강대 교수의 '고려사 중건과 중한문화교류'와 방용용(方龍龍) 교수의 '하모산-한국불교 임제종 발원지'가 관심을 끌었다. 김 교수의 논문은 항주시가 독자예산으로 추진 중인 고려사 중건에 대한 한 · 중 양국과 각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변인석 교수

방 교수의 논문은 관심 갖는 이 없는 하모산 천호암 터를 4번이나 답사하면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한 충실한 논문이었다. 방 교수처럼 현장을 통한 답사보고서는 중국에서 흔치 않다.

학회를 마친 후에는 주최 측 주선으로 항주시 종교국장과 설계회사 직원을 만나 고려사 중건 방안을 들었다. 명대의 것으로 보이는 고려사 그림에 의거해 조벽 · 방생지 · 천왕전 · 대웅전 · 화엄경각 · 윤장전 등을 산세에 따라 앉히는 방안이 유력해 보였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고려사'가 원래부터 고려사였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본래 이 사찰은 혜인사(慧因寺), 혜인고려화엄교사 등으로 불렸던 것이고 보면 중건 사찰을 고려사라 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근래 들어 '고구려', '신라'가 지명에 포함되는 경우 '해음(諧音)이라 해서 발음은 같되 의미가 달라지도록 한 자를 바꿔 쓰는 것이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사라는 이름을 채택한 데는 김준엽 교수(사회과학원 이사장)의 공이 컸던 것 같다.

혜인사가 처음 고려사로 불렸던 기연은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승인 혜인사 주지 정원(淨源) 스님을 만나고 고려로 돌아온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1087년 금서삼역의 <화엄경> 180권을 보내자 정원 스님이 이를 기념하고자 화엄대각을 세웠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혜인사는 고려사로 불리기 시작했다.

고려사 복원과 관련 항주시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중국의 전통문화를 각기 중시한다 △의천국사와 관련된 것을 살린다 △중국승려가 관리한다 △한국 스님과의 교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한다 등을 기본방침으로 세웠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의천각(義天閣)도 중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며, 고려사 중건은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다.

고려사 못지않게 우리 불교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 곳은 하모산 천호암이다. 천호암은 태고보우국사가 석옥청공 스님을 처음 만나 인가를 받은 곳이다. 석옥 스님이 게송을 설해 인가한 글에는 "금린(金麟)이 곧은 낚시에 올라온다"고 했다. 보우 스님이 이때 의발을 받아 임제종의 제19대 조사가 됐다.

원나라 지정6년(1346) 보우 스님이 하모산 천호암을 찾았을 때 석옥청공 스님과 나눈 선어가 <태고보우어록>에 전한다. 태고보우 스님이 귀국해 국사로 있을 때 청공선사가 입적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리를 해동으로 가져올 것을 공민왕에게 주청했다는 기록이 있다.

필자는 태고 스님이 임제종 제19대 조사로 인가받은 지 꼭 658년, 석옥 선사 열반 652주년이 되는 2005년에 임제선 전수와 사승관계를 기리는 기념비를 천호암에 세울 것을 제안한다. 천호암은 한국 임제종이 시작된 곳이기 때문이다.

항주 고려사는 금년 9월까지 제1차 공정이 끝내고 모습을 드러낼 것이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한 하모산 천호암은 언제까지 처량한 절터로 남아 있을지 모를 일이다.

고려사 한 · 중 불교교류공간으로 복원 진행중

천호암 한국 임제선 발원지 … 기념비 세워야

서산 개심사 아미타삼존불 가장 오래된 목불 확인

개심사 목조아미타불.

고려시대 불상으로 추정돼 온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삼존불은 1280년 이전에 조성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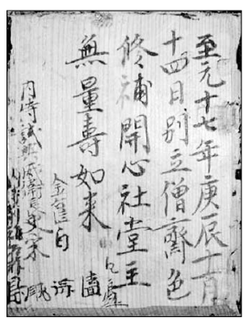
이 같은 사실은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의 의뢰를 받아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이 지난해 시행한 대전 · 충남북 지역 사찰문화재 일제조사의 결과를 담은 도록<한국의 사찰문화재-충남 · 대전편>을 통해 공개됐다.

그 근거는 서산 개심사 문화재를 조사하던 중 목조아미타불에서 발견된 묵서. 묵서에는 별립승(別立僧) 재색(齋色)이 1280년 보수했다고 적혀 있다. 따라서 최초 조성 연대는 12~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까지는 서울 개운사 불상(1274년)이 가장 오래된 목불로 인정받아왔다.

조성 후 수년 내에 보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심사 아미타삼존불은 고려시대 목불 가운데 최고(最古)의 불상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조사단 관계자는 "이 시대 작품이 여럿이지만 편년이 제대로 돼 있지 못했다"며 "이 기록을 근거로 편년관을 새로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전 · 충남북 지역 305개 사찰에서 7천714점의 문화재를 일제조사한 조사단은 개심사 목조아미타삼존불 이외에도 가치가 높은 154건 2천458점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함께 추가적인 정밀조사를 실시, 지정문화재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심사 목조아미타불에서 나온 보수기.

사찰소장 문화재 도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시작된 사찰문화재 일제조사사업은 4년째에 접어든 올해 광주 · 충북전남 지역 400여개 사찰 1만여 점의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익순 기자

한국불교법사대학에서

법사의 삶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요.

출강 통신 **법사학인 수강생 모집**

13년의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시고 불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05학년도 제14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① (사)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③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④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종단 · 법인등록 포함)

입학안내 02)720-1836 733-1959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교육방법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법사과정 = 2년 (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 학습도량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5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우편·팩스 접수 가능)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 3층)
인터넷 http://pubsa.buddhism.org 팩스737-5305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월 개강

2005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6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계환스님(동국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박 종 (동산불교대교수)
2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권기종(동국대교수) · 김호귀(동국대교수) · 윤수열(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 허일범(진각대교수)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최종석(금강대교수) · 박 종 (동산불교대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 불교다도학과(50명) · 불교미술학과 (30명) · 불교한문학과 (5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 (50명) · 불교문화답사학과 (정규반30명, 통신반2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4년 12월 11일~ 2005년 1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미술학과)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불교장례문화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불교문화답사학과)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입 학 일 시 : 불교학과 : 2005년 2월 5일(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불교한문학과 · 불교다도학과 · 불교미술학과 · 불교장례문화학과 · 불교문화답사학과 : 2005년 3월 8, 9, 10일 개강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02)733-0333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 예전 수보리 쉼터 064)743-4184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불교학과, 한문학과)

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불 교 대 학